



1.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로(進路)’라 하면 흔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현재 최고위직에 몸담고 있는 리더에게조차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진로교육이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진학, 전공, 성격, 흥미, 적성, 강점 등의 자기탐색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진로교육은 사회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적응하고, 현재의 업무능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잠재된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적 성장과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직업정보, 자격정보, 취업정보, 기업정보, 업종정보와 산업 트렌드를 전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렇듯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 교육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형태의 교육을 지칭하는 진로지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꿈’과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진로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로지도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학교 급 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2016년 4월에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기존의 1차 계획은 초·중·고등학생의 양적인 진로체험 기회 확대에 집중했던 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이번 2차 계획은 대학까지 학교급별로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진로교육을 하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이어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올해 일반고 37개교에서 시범 실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1000곳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으로 진로지도활동에는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요?

우선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진로인식’의 단계로,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에 적합한 진로교육 활동으로는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 현장 견학형 진로체험, 강연·대화형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진로탐색’의 단계로,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이죠. 이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반교과 연계형 진로교육이 연계 진행되며, 도·농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본격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의 진로지도는 자유학기제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진로·진학 교육과 더불어 대학·학과 관련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진로설계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진로설계까지 마친 학생들은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 때 필요한 것은 취업과 창업의 연계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나 진로교육이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권장되면서 학생중심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죠. 나아가 인턴십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직군의 업무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직군에서 요구되는 역량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때 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성공적인 취업·창업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로지도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진로지도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로지도 전문가라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작성법부터 면접대비 전략부터 학생의 자존감과 취업의식을 고취하는 스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과 역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 수많은 역량들은 크게 스킬적 요소, 마인드적 요소,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요소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스킬적 요소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비전략, 디지털 매체 활용전략을 비롯해 검사도구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지도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스킬과 대인관계 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윤리, 더불어 긍정 마인드와 자존감을 키워주는 능력들이 바로 대표적인 마인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환경적 요소로는 규모별 맞춤 취업전략, 산업 및 업종 분석력과 취업환경과 동향 분석력이 있으며, 개인적 요소로는 학점, 자격증 관리능력, 대외활동 운영, 시간 및 목표관리 능력이 있으며,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킬만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주는 능력 또한 진로지도자에게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진로지도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진로지도 과정의 경우, 총 4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특성 찾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으로는 크게 행복한 삶과 진로 설정, 그리고 나의 특성 찾기가 있죠. 나의 특성을 찾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직업세계 속으로’ 들어가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의 의미와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업의 의미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나면 이젠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진로지도자는 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며 다양한 직업인 역할 모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직업윤리를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로지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진로 결정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로지도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돕고 학생 개개인이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2.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

- 진로지도 전문가로서의 사명

- ①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② 동기부여
- ③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
- ④ 자신의 적성에 부합한 정보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일
- ⑤ 해당분야에 나가서 갖춰야 될 정보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역량을 쌓아주도록 도와주는 것
- ⑥ 생애 전반의 설계를 도와주는 작업
- ⑦ 꿈과 비전을 성취해서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도해주는 역할
- ⑧ 학생들이 각 개별 개별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3. 진로지도자의 역할

① 코치로서의 역할

어떤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하는 역할

②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작은 답을 주는 것. 조금 차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리포트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③ 카운슬러로서의 역할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말을 다시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기쁨을 함께 해주는 역할

④ 멘토로서의 역할

왕이 떠났을 때 왕자가 왕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

